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남원시'

주거·복지 등 분야별 정책 추진...취업·창업 프로그램 운영 두배 적금·상해보험 가입 지원...9월엔 첫 '청년축제' 개최

남원시가 올해 일자리와 주거, 복지, 참여소통 등 분야별 청년정책을 추진하며 더 많은 혜택을 청년들에게 부여하고자 기존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신규정책까지 마련해 추진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분야별 청년정책을 추진해 관내 17개 단체 4443명에게 청년정책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올해도 취업·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청년메이커스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업·창업 프로그램 및 교육, 창업보육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취업희망 청년에게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존 구직활동수당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1000만원, 청년 희망퇴직 창업지원사업 1650만원, 청년창업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최대 5000만원 등 초기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또 매월 최고 16만원씩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함께 청년 세어하우스도 2호점과 3호점을 추가 조성해 30여명의 청년에게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취업 청년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전북형 청년수당은 취업 근무기간을 줄이고 소득기준을 높이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신규 정책으로는 2년 동안 납입한 적금(월 최대 10만원)을 두배로 돌려주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적금 사업과, 군복무 중인 청년의 사고를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생활 안정은 물론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안전망까지 확보하고자 한다.

또 오는 9월에는 관내 청년 간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첫 '남원시 청년축제'가 열린다.

이 외에도 남원시는 청년센터 문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동아리 지원, 청년마루카페 운영, 청년 네트워킹 지원 등 폭넓은 청년정책이 펼쳐진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폐사 피해 양식장 방문 심덕섭(오른쪽) 고창군수가 추운 날씨 때문에 대량폐사 피해가 발생한 송어양식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고창군 제공>

송어 폐사 피해 현장점검 명절 앞 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심덕섭 고창군수, 어업인 위로

정읍시, 16일까지 업소 대상 이력제 특별점검

고창군 심덕섭 군수가 송어양식장 폐사피해 현장을 찾아 어업인을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고창군은 최근 불안면의 송어양식장 3개소에서 약식 중이던 송어가 대량 폐사했다며 심덕섭 군수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다 밝혔다.

양식 송어의 폐사량은 24만마리 규모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한파로 인한 수온급감과 양어장 수면의 결빙에 따른 산소 부족이 대량 폐사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부정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읍시는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설명절을 대비해 축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오는 16일까지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일~20일까지 전통시장과 중소형마트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축산물 관련 점검 대상은 정읍시에 등록된 축산

물 제조·유통·판매업소 290개소 중 최근 점검이력 이 없거나 부적합 처분 이력 있는 업소다.

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운반 시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및 영양성 위생 적합 여부 ▲축산물 이력제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재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어 수산물은 조기,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수입량 증가 또는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떠나요~ 내장산 겨울왕국으로

13~17일 워터파크서 얼음축제

정읍 내장산에서 겨울의 감성을 느끼고 즐기는 '얼음축제'가 열린다.

정읍시에 따르면 오는 13일~17일 내장산워터파크에서 '2023 정읍 내장산 얼음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시는 가을철 단풍 내장산만큼이나 매력적인 겨울 내장산의 모습을 알리고 관광 비수기인 겨울 축제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축제를 기획했다.

13일 개막식에서는 내장산의 상공을 화려하게 수놓는 드론쇼와 미디어 융합 LED 트론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200여대의 드론이 내장산 단풍과 얼음성, 소원나무 등 다양한 모양을 연출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행사장 중앙에는 얼음성과 이글루를 비롯한 각

양각색의 얼음 조각이 전시되며 얼음 미끄럼틀과 얼음 썰매, 얼음 컬링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겨울 낭만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스포츠공원도 만들어진다.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족영화도 상영되며 어린이를 위한 풍선아트와 버블매직쇼,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상화차 만들기, 얼음공작소, 풍류 한마당,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을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 동호인들의 공연은 방문객들에게 겨울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구마와 가래떡 등을 구워 먹는 모닥불 간식과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까지 즐길 수 있는 '호호염터', 푸드트럭과 음식 장터, 농산물 먹거리 장터 등도 차려진다.

이학수 정읍시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남원시 '책값 돌려주기' 월 최대 4만원

권당 2만원 이하 제한 완화

남원시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책값 돌려주기 사업(사진)'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

지난 2020년 시작한 '책값 돌려주기'는 시민들이 지역 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고 한 달 이내에 남원시 공공도서관(시립·어린이청소년)에 구입한 책과 도서 구입 증빙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2권, 최대 4만원까지 책값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책값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남원시민 1228명이 사업에 참여했고 시는 3000만원 규모의 남원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공공도서관으로 유입된 책은 총 2226권이다.

남원시는 이용자 특성에 맞는 균형 있고 체계적 장서 확충은 물론 대형서점 및 온라인 도서 구입으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지역서점의 운영 활성화를 이 사업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특히 올해는 월 1인 2권, 권당 2만원 이하로 제한된 도서 금액을 완화해 월 4만원 내에서 권당 도서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2권을 구매할 수 있게 돼 다양한 도서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계기로 남원시는 '시민-지역서점-공공도서관'과 상호 협력해 '책 읽기 좋은 도시' 남원 만들기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인돌박물관, 2연속 '평가인증 공립박물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호평

고창군 고인돌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인증 공립박물관에 2회 연속 선정됐다.

고창군은 문체부가 최근 실시한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을 올해도 통과했다며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 중 139개의 평가인증 공립박물관에 선정됨에 따라 세계유산활용 특화박물관으로서의 입지를 높였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평가인증제는 정부가 공립박물관 운영 내실화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공립박물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박물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는 설립목적 달성도와 조직·인력·시설·재정 관리의 적정성, 사료의 수집과 관리의 충실성, 전

시 개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살폈다.

고인돌박물관은 국내 최초 고인돌전문박물관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유적의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귀족문화재 보관관리, 기획전시,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호평을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박물관을 아껴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인증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된 것을 계기 삼아 세계유산 도시 고창의 명성에 걸맞게 박물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문화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